

전남도·여수시 '2019 세계한상대회' 유치 추진

세계 韓商들 '여수'로 부른다

전시장·회의장·숙박시설 등 제안
한상재단 관계자 여수엑스포 초청

전남도와 여수시가 '2019 세계한상(韓商)대회' 여수 유치를 추진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여수시는 올해 행사 유치를 위해 오는 20일 재외동포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유치 신청서에는 전남도지사와 여수시장의 서한문을 비롯해 전시장, 회의장, 숙박시설, 관광투어 등 개최환경, 예산지원, 희망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단 TF(태스크포스)운영 등 유치제안 내용이 들어간다.

전남도는 다음달 20일 미국 델러스에서 열리는 제32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수 유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달 말 한상재단 관계자들이 개최 희망지인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를 둘러볼 수 있도록 초청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이 올해 행사 개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했다.

그동안 한상대회 개최도시로는 서울(2002년~2003년)을 시작으로 제주(2004년), 경기(2005년), 부산(2006년~2007년), 제주(2008년), 인천(2009년), 대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구(2010년), 부산(2011년), 서울(2012년), 광주(2013년), 부산(2014년), 경주(2015년), 제주(2016년), 창원(2017년), 인천(2018년) 등이다.

전남도는 이달말 대회 예정지인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 한상재단 관계자의 사전방문을 추진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유치가 확정되면 대회 기본·실행계획 수립과 TF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한상대회는 40여개국 1000여명의 세계한상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인 3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행사로 그동안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 동포기업인을 통한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왔다.

행사를 개최하려면 750일 이상 특급

호텔, 3800㎡ 이상 연회장, 6000㎡ 이상 전시장 등을 갖춰야 한다.

대회는 한상재단 15억 원과 유치 지자체 5억 원 등 20억 원을 들여 기업 전시회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동포기업인과 국내 기업인들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민족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재외동포경제인단체 주축로 매년 국내에서 개최해 온 한상대회를 여수에 유치하기로 했다. 호텔, 연회장, 전시장, 회의실, 예산지원 등이 모두 충족해 한상대회 유치신청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광양만경제자유구청장 공모 6명 지원

지난해 10월부터 공식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에 모두 6명이 응모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접수 마감 결과 전남도 전직 간부, 기업인, 코트라(KOTRA) 출신 등 6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가운데 전남도 소속 현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서류심사, 27일 면접을 통해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인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복수 후보를

전남지사 권한대행에 추천하고, 권한대행은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임명 여부를 협의한다.

전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는 임명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선 공모에서 코트라 출신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해 임명이 무산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0월 권오봉 전 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청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전남도-광주은행-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전남 사랑카드' 업무협약

전남도, 광주은행,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일 도청에서 '광주·전남 사랑카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은행은 사랑카드 이용금액의 0.5%를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전남도는 저소득층 등 지원 대상을 발굴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광주시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했다.

사랑카드는 골프장 이용금액 10만원 당 5000 포인트, 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온라인 쇼핑과 예매·교통업종 이용 시 10% 등 월 최대 3만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사랑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8000원, 해외 전용 1만원이다.

플래티늄 카드는 국내 전용 11만 8천 원·해외 전용 12만원, 아너스 카드는 국내 전용 29만 8000원·해외 전용 30만원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AI 여파로 해남 '산이 매화축제' 취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에서 열리고 있는 '산이 매화축제'가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취소됐다.

해남군은 "전국적으로 AI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부와 전남도가 행사를 자체토록 권고해 산이 매화축제 추진 위원회와 논의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제는 취소됐지만 보해매실농원은

오는 4월 1일까지 개방된다.

매년 3월초 개최되는 산이 매화축제는 국내에서 단일 면적으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산이면 예정리에 위치한 약 14만평 규모의 보해 매실농원에서 개최돼 왔다.

해남군의 대표 축제인 산이 매화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화려하게 물든 '여수 밤바다'

세계 최대 해상분수쇼 '빅오쇼' 개막

봄철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물들이 '빅오쇼(Big-O Show)'가 오는 31일 개막한다.

해양수산부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분수쇼인 빅오쇼가 3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빅오쇼는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된 '디오(The-O)'라는 원형 조형물 안에서 물과 불, 화려한 영상과 레이저 효과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세계 최대의 해상 분수쇼다.

지난 2013년 4월 여수박람회장 재개장

이래 현재까지 64만 명이 빅오쇼를 관람했으며 2017년 작년 한 해만 약 14만 명이 관람하는 등 명실상부한 여수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빅오쇼 관람은 빅오쇼 누리집(http://big-o.expo2012.kr)과 소셜커머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예매 후 현장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발권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모바일 입장권만 제시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예매한 경우에도 좌석을 사전에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는 빅오쇼 개막을 기념하는 퀴즈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는 빅오쇼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며 퀴즈 당첨자 1등(10명)에게는 빅오쇼 무료 관람권(1인 2매), 2등(30명)에게는 캐릭터 상품 등 경품을 증정한다. 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빅오쇼 공식 누리집,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전남선관위 전국 최초 '정책 개발 지원단' 출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해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전남 정책개발지원단' 출범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단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 한국수

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목포경찰서, 전남지체장애연합회,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우리전남 정책개발지원단'은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과 함께 공약을 수집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정책 선거 실천 약속과 추구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이번 출범식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 중심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해 향후 각종 공식선거에서도 '우리전남 정책개발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수학이 재미없다면 '수학체험센터'로~"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는 '광주 수학체험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동구 윤림동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 총면적 316㎡ 규모로 수학체험센터를 개설해 오는 21일 개소식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수학체험센터는 체험센터, 수학사이버 체험실, 수학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보고 만지고

활동하며 수학의 실용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초·중학생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고등학생이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상설 체험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학급 또는 동아리는 교육과학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한 후 공문을 발송하면 된다.

/광주=김남중 기자